

씨튼연구원 종교대화 20주년 기념 심포 축사

축 사

종교간 상호이해를 위해 노력해온 씨튼연구원이 설립 스무 돌을 맞이한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씨튼연구원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성과 한국 문화의 간극을 좁히는 것과 종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994년부터 시작된 종교대화 프로그램은 세미나, 종교대화강좌, 출판 등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하여 왔습니다. 이제 20주년을 맞아 그러한 노력이 한층 높게 발전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은 매우 소중한 과제입니다. 실제 우리 사회의 종교 현실은 매우 특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주의 시대를 거처온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 사회와 같이 종교인구의 비중이 적은 나라가 매우 드물 뿐 아니라 50%를 갓 넘는 종교인구 역시 여러 종교로 또 종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구성은 사실 국론의 통합과 사회 안정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종교적 다양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게 된 것은 바로 씨튼연구원과 같이 종교간의 대화에 노력하는 양식 있는 종교인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오늘 씨튼연구원이 주최하는 심포지움의 주제 또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태, 즉 '유기체의 생존과 결부된 환경'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매우 주목받는 이슈입니다. 더욱이 생태의 보전은 인간에 의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온 친생명적 환경 시스템의 회복이 절실한 우리 시대의 중대한 과제이고, 물질문명과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적 시대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제공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각 종교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는 두 말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심포지움에 참석하는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청중이 모두 함께 진실한 대화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진실한 깨달음을 던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심포지움을 열어준 씨튼연구원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모든 종교적 살핍과 복덕을 함께 나누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1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